

중요보도

보도매체명 : 강원신문
 게재 일자 : '09년 1월 24일(목)
 게재 면 : 14면

황둔권역 종합 개발 '탄력'

원주시, 올 25억 투입 안내시설 등 설치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일대 마을을 청정 건강장수권역으로 특화시키는 황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5년차 사업으로 모두 74억원이 투입돼 추진중인 황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3년차를 맞는 올해 소득기반, 농촌관광, 경관시설부문 등에 국·도비와 시비 등 25억여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3년차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는 황둔1리에 산약초 보양센터와

재배단지, 친환경 곤충농장을 조성하고 전원생활학교 리모델링, 노인생활관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마을별 도로주변 화단을 정비하고 안내시설을 설치기로 하는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1년까지 황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모두 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앞으로 발효퇴비시설 등 소득기반시설과 노인생활관, 찜질방 등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선다. 원주/박현철

관 련 부 :

담 당	팀 장	지 사 장	공 월 일	공 람
2	강원신문	박현철		